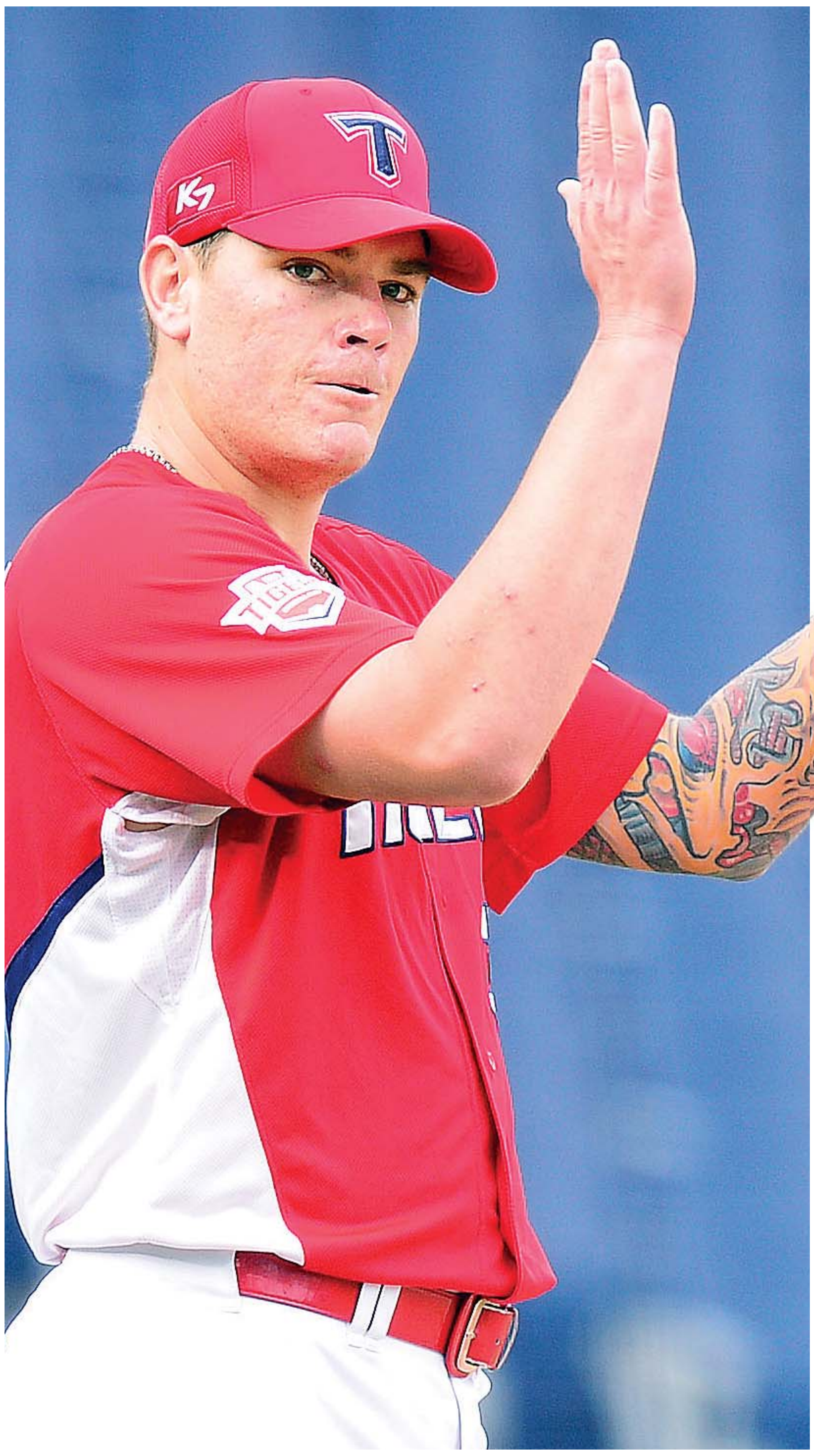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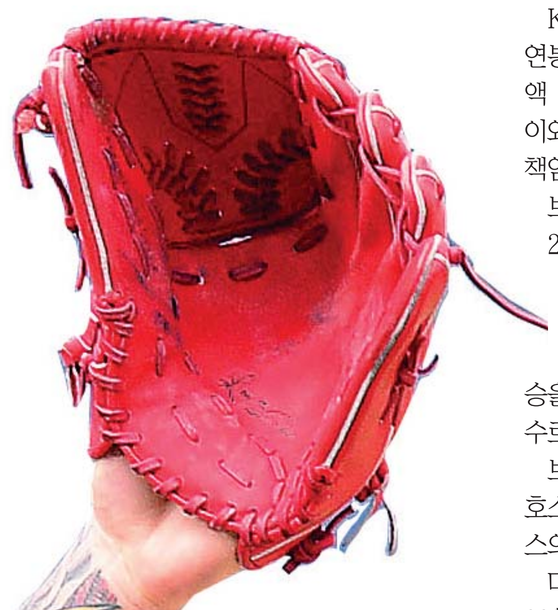
호랑이 '따뜻한 情' 브룩스 붙잡았다

KIA, 재계약 마무리
총액 120만 달러
리그 대표 투수로 존재감
가족 사고로 美 조기 귀국
구단, 귀국 지원·잔여 연봉 지급
동료들 모자 문구로 쾌유 기원
팬들도 SNS에 응원 릴레이

팬들과 동료 그리고 구단의 '진심'이 브룩스를 붙잡았다.

KIA가 19일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31)와 연봉 100만 달러, 사이닝 보너스 20만 달러 등 총액 120만 달러(옵션 별도)에 재계약을 끝냈다. 이와 함께 브룩스는 2021년에도 KIA 마운드를 책임지게 된다.

브룩스는 올 시즌 KIA의 에이스였다.

23경기에 나온 그는 151.1이닝을 소화하면서 11승(4패) 평균자책점 2.50의 성적을 냈다.

9월에는 0.95의 평균자책점으로 4전 전승을 기록하는 등 팀은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존재감을 발휘했다.

브룩스로 날개를 단 KIA는 5강 싸움 막판 다크호스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브룩스의 시즌이 일찍 마무리됐다.

미국에 있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9월 22일 브룩스는 급히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간 브룩스는 팬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했다. 3살 된 아들 웨스틴이 크게 다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많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왼쪽 눈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의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아들의 건강과 함께 빅리그의 뜨거운 관심도 브룩스 재계약의 변수가 됐다.

일본은 물론 빅리그도 일찍부터 브룩스를 점찍어 놓고 지켜봤고, 영입에 공을 들였다.

뜨거운 '러브콜'에도 브룩스의 마음은 KIA로 기울었다.

올 시즌 KIA행을 이끌었던 '스승' 윌리엄스 감독과 따뜻한 마음의 동료·팬들이 브룩스의 마음을 붙잡았다.

동료들은 그라운드에서 브룩스와 함께 뛰었다.

KIA 선수들은 모자, 헬멧, 프로텍터 등에 브룩스 가족 이름 이니셜인 'W.W.M.B', 'All is well(다 잘 될 거야)' 등의 문구를 적어 마음을 전했다. KIA 덕아웃에는 브룩스의 유니폼이 함께 했다.

브룩스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SNS상에서 응원 릴레이를 펼치기도 했다. KIA 선수들을 중심으로 팬들까지 간절한 기도와 응원 메시지를 전하면서 브룩스와 가족들을 감동케 했다.

선수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해준 구단도 브룩스에게는 감동이었다.

치열한 5강 싸움이 전개되는 상황이었지만 KIA는 고민 없이 브룩스의 귀국을 허락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최대한 빨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주는 등 애를 썼고, 개인 사정으로 귀국했지만 약속했던 연봉도 모두 지급해줬다.

씩씩하게 사고를 이겨낸 아들 웨스틴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KIA는 웨스틴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 '토이스토리'의 콜라보레이션 유니폼에 '웨스틴'의 이름을 새겨 미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을 위해 브룩스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브룩스는 "내년에도 KIA타이거즈 선수로 뛸 수 있어 기쁘다"면서"가족이 사고를 당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팬들이 보내준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지원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감염병 등으로 일정 축소되면 선수 연봉 감액

KBO가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리그를 정상 운영할 수 없을 때 선수단의 연봉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KBO는 19일 서울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약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같은 감염병, 천재지변,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리그 운영이 어려울 때 참가 활동 기간과 연봉,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KBO 규약과 선수단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그가 축소 운영될 경우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이 감액 지급된다. 단 최저연봉 3000만원의 감액 하한선을 뒀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도 KBO의 규정에 대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선수협은 "'천재지변 및 국가적 재난 사태에 따른 연봉감액' 규정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KBO리그 프로야구 선수들도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선수협 이대호 회장도 "KBO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선수들도 이미 몇 차례 뜻을 같이했으며, 다 같이 동참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선수, 구단, KBO, 업계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프로야구 상생을 위해서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US오픈, 또 한국 독무대 되나

다음달 11~14일…LPGA, 유해란·이정은·고진영 등 출전명단 확정

유해란

고진영

이정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 유해란(19)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 출전한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여자골프 세계랭킹을 참고해 영암출신 유해란 등 28명의 선수를 추가한 156명의 US여자오픈 출전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19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했다.

올해 75주년을 맞는 US여자오픈은 오는 12월 11~14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6월 5~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또 매년 개최하던 지역 예선전을 취소하고, 대회장 갤러리의 입장도 금지하기로 했다.

유해란은 지난해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면서 출전권을 획득하고 올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슈퍼 루키'로, 이번에 US여자오픈에 처음 출전한다.

지난 8월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조피아 포포프(독일)도 이번 28명의 추가 명단에 포함됐다.

포포프는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하고도 코로나19로 꼬인 일정 탓에 다른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피레이션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US여자오픈에는 뛸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안나린, 크리스티 커, 전미정, 김보아, 최예림, 김소이, 이지희가 US여자오픈 무대를 밟는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정은(24)을 비롯해 박성현(27), 전인지(26), 유소연(30) 등 역대 챔피언들과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 등도 US여자오픈에 출격한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너마저…

ATP 파이널스 준결승 메드베데프에 0-2 패

다닐 메드베데프(4위·러시아)가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를 잡고 시즌 왕중왕전 격인 2020 남자프로테니스(ATP) 파이널스 준결승에 올랐다.

메드베데프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디 오투 아레나에서 열린 단식 조별리그 '도쿄 1970 조' 2차전에서 조코비치에게 2-0(6-3 6-3)으로 이겨 대회 2연승을 달렸다.

이로써 디에고 슈와르츠만(9위·아르헨티나)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4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다.

이달 2일에 끝난 파리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메드베데프는 7연승을 내달리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메드베데프는 장기인 강한 서브로 조코비치를 압박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서브 에이스에서 10-3으로 앞섰다.

메드베데프의 조코비치에 대한 전적은 3승 4패가 됐다.

앞서 열린 같은 조 경기에서는 알렉산더 츠베레프(7위·독일)가 슈와르츠만을 2-1(6-3 4-6 6-3)로 제압했다.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 중인 츠베레프와 조코비치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승자가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이 대회 통산 5회 우승자인 조코비치는 5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한편, '런던 2020 조'에서는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이 2연승으로 가장 먼저 준결승에 선착한 상태다.

/연합뉴스